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봄이 왔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요

### 15면에서 계속

모한 것입니다. 마음이 악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선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표를 해서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 세계를 한 찰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마음이 마음을 가두어 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안과 밖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기 이전 마음은 바로 마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한 찰나에 살 것을 그렇게 해서 탄 모습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의 승상에 또 매여서 차이 되고 승이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 천년을 물에 가라앉았다가 한번 떠오를 때에 구멍 뚫린 뱃속 하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하는 자리를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난 것도 여러분이 수억 겁을 거쳐서 인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99%가 부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한발 한발 걸어가신다면 그대로 부처예요.

### 전생 일 왜 기억하지 않아요

**문** 윤회가 분명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지나간 전생 일은 왜 현재에서는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친 분들은 과거 생을, 즉 말하자면 이 사바세계와 무아의 세계를 그저 한찰나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그냥 넘나드니까 모를 리가 있느냐? 삼천년 전도 알고 삼만년 전도 알고 삼십만년 전도 알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고만 하고 알려고는 안하느냐 이겁니다. 모른다고 한탄하지 말고 심안으로 볼 줄 알고 심안의 귀로 들을 줄 안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넘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족하게도 하지 말고 그저 차분히 진실로 믿고 내 뿌리에 서만이 나올 수 있다 하고는 그냥 자꾸 지름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 조상친도 효과있는지요

**문** 윤회사상이 율직일 수 없는 명백한 한 사실이라면 조상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을 읽어 그들을 천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까? 또한 그들이 윤회를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지요?

**답**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 드려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물려서 캄캄하다면 묘지에서 시체를 깨내도 이거는 문제가 되구요, 갖다 놓어도 문제가 되지요. 가도 걸리고 와도 걸리고 전부 걸려요. 또 도와줄 수도 없구요. 나도 도와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 나부터 안다면 그것



그림 · 최주현

있으니 전부 마음 놀이이다. 그러니 마음으로서 해결을 하라 이거죠.

**문** 천도도 저 집안살림부터 잘 해야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답** 그렇죠. 그거야. 내 한생각이 넓으면 돌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걸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걸 부처님 말씀과 여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어봤자 소용 없어요. 오히려 물어 병이나 들죠. 그래서 안되지 않습니까?

### 풍수지리와 사주 궁합은

**문** 민간신앙은 혼인이나 장례 등 경조사를 치를 때 풍수지리를 따지거나 길일을 택합니다. 이 집은 방향이 좋지 않으니 자손에게 좋지 않다, 또는 점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구요. 그 세계를. 그러기 때문에 산발이든 물이 있든 그 자리를 파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여기는 참 좋겠구나. 벌도 들고 물도 아래로 흐르고...' 이것도 상황이 따라서 말합니다. '여기 참 좋구나. 앞은 산봉우리가 저렇게 있고 울타리도 저렇게 둘러싸여 참 좋구나.' 그러는 거죠.

여기 안양에 이 집을 처음에 터를 마련해서 짓는데 말합니다. 풍수하는 사람들, 뭐 역학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러니 굴왕신이 들어서 사람이 때로 죽고 뭐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허, 죽으면 한번 죽지 두번 죽어? 굴왕신이 들기는 무슨 굴왕신이 들어? 내 마음이 굴왕신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지 굴왕신이 따로 있어? 그러구선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자

나올까봐 겁나고 목신이 나올까봐 겁나고 말합니다. 목신도 '참 마음 좋은 사람 오는구나' 이라고 좋아서 미리 저만치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왜 내가 무서워 합니까?

이따금씩 공양도 제공하고 말합니다. 무슨 공양이냐구요? 그 목신이 말하기를 '저기 조금만 돌아가시면 공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오' 그 그러거든요, 돌아 가보면 연락없이 새끼오라지여 복어 하나 나가 꼬여 있어요. 그러면 그 복어 꼬라지를 딱딱 물로다가 쳐서 열구리에다가 썩 끼구선 이젠 가는 거죠. 또,

### 윤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 저희로서는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현실 생활가운데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답** 조금 아까 딱 말 하시고 지금 또 딱 말 하시네요. 그게 증명이 된거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전체를 알게 되죠. 우리는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사는 게 모두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윤회에 고달리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로 가르치신 거죠. 즉 '윤회'라는 것이 알고 본다면 모두 공했으니까,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딱 놓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아무 상관 없이 양면을 잘 봐서 그냥 막연히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구요. 또 어느 산이든지 어느 땅이든지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거죠. 지금은 우리 나라가 땅이 좁아서 어느 때 묘지를 파 가지고 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탐으로 하나만 해놓는다면 아주 죽어도 걱정이 없고 살아도 걱정이 없죠. 상대가 들어가고 아랫대가 들어오면 위는 사르고 또 들어오면 위는 사르고 하니가 세세생생이 좋은 거죠. 뭐.

그러니 아무데나 내가 좋다 하는 자리면 그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참법은 그런데 있는 거지 될 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주장자가 있으면서 하늘을 깨어서 굴릴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느 귀신이라도 범접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 부처님 증생이든 귀신이든 뭐든 닦치는대로 먹어버리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불비위에다 그거 닦치는대로 넣으니까 타버리더라 이런 거요.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

다.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주인공' 하면 바로 반야심경에도 '공했다'라고 했듯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끝없이 이루어가는 영원! 자기가 그냥 영원한 겁니다. 하여튼 부처가 되든 증생이 되든 차안에서 넘지 못하든 넘든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허매여서 그렇게 끝없이 윤회에 말려서 허덕거리니까 그게 걱정이지, 그저 어느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세세생생에 그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든 잘못했든 그냥 긍정적으로 '어, 잘한 것도 내고 못한 것도 내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지' 하고 놓는다면 앞서의

### 우리가 어떤일을

잘했던 잘못했던

주인공에 놓는다면

앞서 입력없어지고

새입력 풀려나와

꽃이피고 열매열려

무르익어

만가지 맛이나죠

입력이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것이 풀려나오면서 좀 살 만하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아주 만가지 맛이 나면서 이게 살 맛이 나는 겁니다.

### 윤회사상의 궁극목적은...

**문** 거의 모든 종교가 윤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는 장생불로에 있다고 하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천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것도 마음에 있는 거죠. 도교도, 이 마음이 벗어난다면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이 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려면 나오고 달려면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송두리째 얻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발견해야만 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상대를 보고 믿고 상대를 보고 기도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기부터 알았으면 그 도리를 모두 알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도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를 놓고 빌고 그런다면 그것은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이 법당에 들어오면 당신이 이 법당에 들어 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당신이 법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도 자기의 형상과 들어 아니요, 마음도 들어 아니요, 생령도 들어 아니요, 전체가 들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일체를 하든지 삼배를 하든지 또는 부처님한테 하나로 묶어 놓고 삼배를 하고 다시금 자기한테 하나로 묶어 놓든지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덕이 되구요.

바깥에는 봄이 왔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봄이 와서 맑게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십니까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가는게 제법무아

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 이런 말도요. 마음공부하신 분들은 때로는 꿈에도 조상이 보이거나 생시에도 조상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너무 극성스럽거나 너무 서로 싸운다 이런 때 '모든 게 돌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죠. 그런 것 하나 뿐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돌이 아닌데 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한쪽만 조금 켜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자재권을 가진 것은 지수 화풍이 바탕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전에 얘기했듯이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충만히 내가 자유자재해서 끌어 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유자재하게 끌어올 수

정이가 공할을 보러 간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사주가 맞지 않으니 결혼을 해서 안된다 라고 합니다. 풍수지리 일진이 윤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허허허.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이 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장이 없겠습니까마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되는 데도 맞습니다. 사주나 궁합을 보는 게 아니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랑 신부가 잘맞는가,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게 궁합이지 무슨 궁합이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네? 무슨 날이 길일이고 궁합이 좋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잘 보고 맞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궁합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궁합도 맞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풍수지리 얘기 하셨는데 풍수 보는 사람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다가 이 마음에서 우려져 나와서 '이 자리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가 그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리에 여러분이 앉았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도 자리를 보고 덤비지 덮어놓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피하려고 애쓰면 자꾸 재미있어서 쫓아가고, 귀신이 와도 그냥 탁 집어 삼키면 쫓아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나면 사람이죠.

어느 누구든지 밤중에 산길을 가다보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저는요, 산속 깊이 들어갔어도 늠름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겁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먹을 거 있는 데를 가르쳐줘서 먹고 남퍼려지가 있으면 남퍼려지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길다가도 남퍼려지가 되면 '여기 남퍼려지니까 가지 마세요' 이라고. 하다 못해 부엉새도 도와주고, 산 비둘기도 도와주고, 지나다니는 뱀도 도와주고 모두가 다 도와주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뭐가 무서워요? 무섭다는 건 볼로 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고, 아무리 깨내도 깨내도 졸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결망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바탕부는 대로 휩쓸리면서 내 주장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차안의 세계에서 만날 그렇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주인공은 대체 누구인지요

**문** 윤회의 주체가 우리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주인공이라면,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가에서는 아뢰아신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도 한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러면 '한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해 봤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한마음이니 왜 그랬습니까?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 한마음선원 신도회